

대형마트 휴업 효과, 전통시장 살아나네

광주 이마트 5개점 작년 매출 6% 감소 전통시장 체감경기·매출지수는 쑥~욱

지난해 의무휴업 실시로 지역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각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광산·광주·동광주·상무·봉선점)은 지난해 4~8월, 10~11월 총 7개월간 14번 실시한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6.1%가 줄었다. 의무휴업에 따른 손실액은 206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남지역 이마트 3개점(목포·순천·여수)도 같은 기간 매출이 4.8%가 줄었고 손실액은 1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조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으로 실시중인 휴업(자율휴무)으로 인한 매출감소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전년 동기보다 약 6%씩, 홈플러스는 4.8%로 집계됐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680억원 감소했으며 자율 휴업에 따른 손실액은 387억원, 의무 휴업에 따른 손실액은 239억원으로 각각 자체 추산했다.

현재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영업규제를 하는 지역은 50여곳이며 대형마트 3사 점포 380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포는 131곳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매출 손실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개정 유통법이 시행되면 매출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전통시장과 향토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로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승우 광주전통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워낙 경기가 안좋아 손님들이 구매를 많이 망설이면서 객단가는 줄었지만 시장을 찾는 고객수가 늘고 야채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시장도 지속적으로 소풍 콘텐트를 개발하고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향토 유통업체인 'Y-MART'(영암마트)가 지역 내 40개 점포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실시한 기간동안 점포별로 10% 가량 매출이 늘었으며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매출이 15%까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시장경연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10~11월 시장경기동향조사' 결과 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비롯해 매출실적이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시장경기동향지수(M-BSI)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51.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1월에는 65.2로 지난해 같은 보다 13.9포인트나 올랐으며 11월 매출실적지수도 63.2로 지난해 11월(48.0)보다 15.2포인트(약 32%)나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국 8도 명물 한 자리에
"2013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1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명절선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제시, 새로운 선물시장 발굴을 통한 상품개발 촉진,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열린다. /연합뉴스

LPG 차량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작년 LPG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만3367대로, 전년보다 1만1745대 줄었다. 전체 자동차 등록에서 LPG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3.3%에서 작년에는 12.8%로 떨어졌다.

LPG 차량은 집계가 이뤄진 1999년(78만6072대) 이후 해마다 증가, 2010년에는 역대 최고인 245만5696대를 기록했다가 2011년 처음으로 1만584대 줄었다. 지난 10여년간 '폭풍 성장'을 이룬 LPG 자동차 시장이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은 2000년 전후로 도입된 차량의 폐차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LPG 차량의 최대 확장기인 1999~2002년 4년간 쏟아져 나온 113만대가 차량 노후화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등록은 부진하다는 것이다.

택시 등 업무용이나 장애인에게만 LPG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것도 시장 확대에 제약 요인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전 세계 LPG 차량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LPG 차량 운행 대수는 2107만대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01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연합뉴스

대-중소기업 임금·근로시간 격차 확대

최근 5년간...중소 월평균 임금, 대기업 51%로 떨어져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는 5년 전에 비해 대기업보다 일은 더 오래 하고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16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제조업

(5~299인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68만3170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16만6133원의 51.94%에 불과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1분기 55.95%에서 4년6개월 만에 4.01%포인트만 떨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4년6개월 동안 21.39% 오른 데 비해, 대기업은 30.77%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제조

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비율은 이후 2008년 3분기 54.86%, 2009년 3분기 57.89%, 2010년 3분기 57.80%, 2011년 3분기 51.00%, 2012년 51.94%의 추이를 보였다. 3년 만에 임금 격차는 다시 5.95%포인트만 벌어진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작년 3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6.7시간으로, 대기업(176.8시간)의 105.6%에 달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77.45 (-6.29)	코스닥지수 507.68 (-0.34)	금리 (국고채 3년) 2.74% (+0.01)	원·달러 환율 1058.70원 (+2.20)
--------------------------	-------------------------	------------------------------	-----------------------------

기아차 '더 뉴 K7' 북미 시장 공략 나섰다

디트로이트 모터쇼 출품

기아자동차가 '더 뉴 K7'을 필두로 북미 대형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3 북미국제오토쇼(NAIAS,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준대형 세단 '더 뉴 K7'을 '카덴자'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더 뉴 K7'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성능과 첨단 사양을 갖춰 국내 출시 2개월 만에 8000여 대가 판매됐다. 전면부 패밀리룩을 반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면부 LED 리어 콤비램프 및 타원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하이테크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뛰어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북미 프리미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아차는 이 차를 화성공장에서 양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총괄 디자인 사장이 오토쇼에 출품된 '더 뉴 K7'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산, 2분기부터 북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LA)국제오토쇼에서 북미 최초로 공개된 K3(현지명 포르테)도 화성공장에서 양산해 2분기부터 북미에서 판매한다. 대형차 시장은 K7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형차 시장의 K3로 '볼륨'을 늘린다는 전략. 두 차종이 앞서 북미 출시 2년 만에 최대 판

매 모델로 떠오른 중형차 K5(옵티마)의 성공을 이어갈 것으로 기아차는 기대중이다.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미국 유명 만화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 내·외관을 튜닝한 '옵티마 배트맨'과 '쏘울 그린랜턴'을 비롯해 총 22대의 차량을 1325㎡(401평) 공간에 전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작년 광주서 1000명 채용

전국선 1만4530명...연초 채용계획 40% 웃돌아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지난해 광주에서만 1000여 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16일 330여개 1차 협력업체가 지난해 광주를 포함, 전국에서 1만453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지난해 연초 채용계획 1만 명을 40% 이상 뛰어넘는 규모로, 1차 협력업체들의 '12년 말 총 고용인원이 14만3000명임을 감안

하면 지난 한 해 10%가 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이 이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은 전 세계 판매량 증가와 지난해 5월 열렸던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덕분.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이 인재 확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물론 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 홍보까지 지원 총 고용인원이 14만3000명임을 감안

광주에서 열린 행사에는 호남권 부품 협력사 4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주 소지 기준 1000여 명이 직장을 얻었다.

현대·기아차에 차체 모듈을 공급하는 ㈜호원의 채용담당 황승현 차장은 "현대·기아차의 전 세계 판매 증가는 협력사의 공급량 및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부품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채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건설협회 전남도회 적십자 성금 5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김영구)가 16일 오전 목포시 용담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 도 적십자회비 모금 사랑의 등불 점화식'에서 적십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영구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충환 부회장은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지역의 대표적 건설단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건설협회 전남도회 적십자 성금 500만원 전달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민첩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12 DAENEUNG'S Best Seller

알짜배기 여행회화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도 구성

* 한자능력검정 *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생황,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임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